

주간 증시 포커스

3분기 실적·美 연준의장 인선 주목

코스피 2500선 넘을지 최대 관심

코스피지수가 장중 249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연초 이후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및 대형주가 차익실현 매물출회로 조정세를 보였지만 주 초반 글로벌 증시 호조와 중국 철강업체 구조조정 기대감으로 철강업종과 한국전력 LG전자 등이 지수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닥시장은 관심을 모았던 셀트리온그룹 3인방은 주 초반 높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며 주 후반 조정을 보였고 중국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화장품 계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반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업종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면 코스닥지수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이 시가총액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코스닥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9월 1일 이후 셀트리온 +55%, 셀트리온헬스케어 +25% 신라젠 +126%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약 1230개 종목이 상장된 코스닥지수는 2.3% 상승하는데 그쳤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바이오관련주가 7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다수기업의 실적개선과 실적회복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수급여건상 개인투자자의 추가적인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글로벌시장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핵심종목 중 성장성과 외국인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한정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차기연준의장 인선(11/3일 예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월가 펀드매니저, 전략가, 경제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차기연준의장은 재닛 옐런 현연준의장으로 조사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입장을 대변하듯 비둘기파적 정책을 이어온 연준에 옐런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제롬 파월이 차기연준의장으로 임명된다면 차선책이지만 현재의 정책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매파적성향의 톰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나 케빈 워시 전연준이사가 지명될 경우 글로벌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증시는 차기 연준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다음주까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강상태가 예상된다.

이번주 한국증시에는 약 34개 기업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SKC코오롱PI LG하우시스(23일), LG생활건강(24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S LG디스플레이(25일), SK하이닉스 현대차 POSCO LG화학 NAVER KB금융 KT&G LG전자 우리은행(26일), 롯데케미칼 하나금융지주 기아차 기업은행 현대제철 만도(27일) 등, 실적발표일은 변경될수 있음>

코스피지수는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며 2500선 안착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스닥시장도 연말연초 정부 정책 발표 기대감속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중국관련소비주와 연말 다수의 임상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상승시도가 예상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수입농산물 판매...농심 외면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 광주 6곳 등 전국 82곳서... 중앙회는 3년간 단속 한번도 안해

## 공판장 유통 수입농산물도 매년 증가... 5년간 1조1918억 달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농협이 여전히 일선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등 ‘농심’(農心)을 외면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 활성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바나나와 포도 등 수입농산물을 버젓이 판매 중으로, 농협중앙회는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도 지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개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적발된 전국의 하나로마트는 총 82개소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6개소를 비롯해 ▲경기 40개소 ▲강원 19개소 ▲경북 12개소 ▲서울 2개소 ▲인천 2개소 ▲충남 1개소 등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판매장에서 수입산 농산물 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입산 농산물 판매를 두고 단속 및 처벌에 나서야 할 농협중앙회가 최근 3년간 단속과 처벌도 지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매장의 경우 농민단체의 항의나 단속에 판매를 중단했다가 추후 판매를 재개하는 등 수입산

산물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협의 ‘경제 통합 시스템’에서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은 전혀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개별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을 국산 농산물 코드로 등록해 판매한 것으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 규모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면서 총 금액이 무려 1조1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은 총 60만5288t이었다.

▲2013년 11만4770t(2124억원) ▲2014년 11만2767t(2234억원) ▲2015년 12만8504t(2499억

원) ▲2016년 13만8441t(284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과일류가 9206억원(77.2%)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750억원(14.7%) 기타 962억원(8.1%) 순이다.

일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농협공판장의 수입산 비중이 커질수록 농민들의 소득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협이 애초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수입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매년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조정장들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다는 등의 핑계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며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농협 정신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배 활용 한식요리 배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aT)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초청해 계절과일 배를 활용한 한식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aT 요리클래스’를 진행했다. <aT 제공>

### 순천 명품배 수출 선적식

### 농협전남본부·순천농협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지난 20일 순천 거점산지 유통센터에서 행정기관 관계자와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제) 배 수출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순천 명품배 수출 선적식’을 진행했다.

전남농협과 순천농협은 지난해부터 배·단감·키위를 주력 수출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는 등 수출물량 확대에 주력해왔다.

이날 상차된 수출물량은 대만 16t이다. 지난 2016년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한 배 180t, 단감 70t, 키위 40t 등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300t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농협 강성제 조합장은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힘써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더욱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어류·전복업체 31곳 첨단기술 지원·현장으로 자문

### 전남어촌특화센터·경남어촌특화센터

### 수산종자 클리닉센터 시범사업 종료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부경대 등이 실시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2차년도 해양수산부 수산종자 산업현장 클리닉센터 운영 시범사업이 지난달 종료됐다. 이들 기관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해 어류와 전복 종자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지원, 현장 애로 자문, 긴급 처치 등을 지원했다.

22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사업은 영세한 수산종자업체의 기술혁신, 사료·경영·판매 등 양식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수산종자기술 세계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실시됐다.

이들 기관들은 현장기술지원팀과 사업운영지원팀으로 분류해 어류(납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패류(전복)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맡고, 부경대는 기술지원에 나서는 형태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에는 해상종자업체 981곳, 육상종자업체

1661곳 등 모두 2642곳으로, 이 가운데 전복이 720곳으로 가장 많고, 어류(395곳), 새고막(249곳), 굴(246곳)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복종자업체는 완도, 진도, 해남, 여수, 제주에, 어류는 경남, 전남, 제주, 충남 등에 주로 분포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사료, 수산생물, 해양생물, 수산질병, 수산양식, 수질환경, 양식기술, 경영, 자원육성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30명 내외의 박사, 연구원, 기술사로 팀을 구성해 4차례의 현장컨설팅에 나섰다. 컨설팅에 대한 업체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운

영자료 용자, 시설 및 장비 임대, 업체 간 과도한 경쟁 자체 등 현장컨설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컨설팅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현장클리닉 인력 전문화 ▲생산 기술·시설 현대화 지원 ▲현장클리닉 운영시스템 효율성 제고 ▲수산종자산업 육성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특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수산종자산업은 미래 우리나라 바다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기술력이 점차 낙후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무인텔”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